

KERI Brief

중소기업 성장과 정책금융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BK@keri.org)

최 근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이윤성·성장성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에 대해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향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성장성을 극대화하도록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 정책금융공사 및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자금의 중복집행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GDP대비 정책자금 비율이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첫째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방향을 보호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현행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도는 객관적인 조사·평가 및 관련 지원제도의 통폐합을 통해서 정책자금 지원의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로 지원규모가 크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의 낮은 성과, 기관 간 중복지원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정책금융 기관전반의 역할 재정립 및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기초로 기존제도의 존폐여부를 포함한 정책자금 집행기관의 점진적인 구조개선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양대 신용보증기관, 정책금융공사, 지역신보 및 기타 중소기업 정책 추진기관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의 개폐현황 파악, 지원제도의 효과성·효율성 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1. 문제제기

□ 현재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가 단절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하는 데 한계¹⁾

- 김주훈(2005)에 따르면 1993~2003년 기간 중 300인 이상의 업체로 성장한 기업은 75개(0.13%), 500인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체 수는 8개(0.01%)에 불과²⁾

- 최근 IBK경제연구소(2011.7.)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1년 동안 중견기업으로 도약에 성공한 新중견기업 비율은 1% 정도에 불과³⁾

□ 최근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이동·성장하려는 유인을 억제하고 있는 현실

-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면 할수록 지원정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는 유인 억제

□ 본고는 최근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성장성에 미친 영향,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및 중복성 문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정책자금과 중소기업 성장 및 중견기업으로의 이동효과

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기업성과에 주는 영향 연구결과

□ 정책금융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의 분석결과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강중구·정형권(2006) 및 안중범(2011)은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분석⁴⁾

- 다만, 김찬수(2009)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지원받은 집단의 설비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⁵⁾

- 1)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2013.9.17.
- 2) 김주훈,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5.
- 3) IBK경제연구소,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실태와 과제』, 2012.4.
- 4) 강중구·정형권,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분석, 『금융경제연구』, 제250호, 2006. 안중범, 『정책자금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성과 분석』,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분석 및 차별화 방안 연구』, 2012. 재인용.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이 수익성이나 성장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최근의 분석결과

- 신상훈·박정희(2011)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수익률과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석진(2013)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금융지원이 수익성·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를 발견⁶⁾

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경계선상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동·성장하는 것을 억제

□ 중소기업 가운데 실제 중견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경계선상의 중소기업'⁷⁾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정책자금은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이것은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들이 법적 기준에 맞도록 기업규모의 성장을 억제하여 혜택을 계속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

- 중소기업들이 문턱(threshold)을 넘어 일정 기업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자회사 설립, 기업쪼개기, 해외진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제⁸⁾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규모 국제비교

가.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의 현황과 역할

□ 정부는 직·간접 투·융자, 온랜딩 및 신용보증 등과 같은 방식으로 중소기업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

□ 현재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공사 및 넓게는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단추천-은행대출의 대리대출 방식과 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원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을 보증재원으로 삼아서 창업,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 등 다양한 보증상품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기능을 수행

6) 김현욱,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수익성 개선효과", 『한국개발연구』, 제27권 제2호, 2005. 신상훈·박정희, "신용보증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중소기업연구』, 32권 1호, 2011. 우석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과 평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모색과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개발연구원, 2013.10.

7) 정연승·권선주·박연숙·황성수, 『중소기업 적정범위 검토 및 운용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기본연구 06-02, 중소기업연구원, 2007.

8) 이병기,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3.

- 정책금융공사는 온렌딩(on-lending) 지원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
- 중소기업청 및 여타 부처들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의 기금을 통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

□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기능을 수행

[표 1]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현황 비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	정책금융공사
설립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설립일자	1979. 1. 30	신보 1976. 6. 1 기보 1989. 4. 1	2009. 10. 28
재원조성	정부출연 및 채권발행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출연금	정책금융채권 발행
지원규모(억 원)	(2012) 36,230	(2012 계획) 559,000 신보 385,000 기보 174,000	(2012) (온렌딩 48,000)
지원성격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산업정책 지원 수단	대출기관의 용자기능을 보완(신용보강)하기 위한 보조 수단	중소기업 금융공급을 위한 간접적·소극적 금융지원 수단
지원대상	창업·기술개발·장기시설 투자기업, 재해기업 등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이용에 애로가 있는 기업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 (창업 3년 이상 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업)
	*회사채 신용등급: BB등급 미만	*회사채 신용등급: BBB등급 이하	*회사채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지원방식	종합진단에 의한 맞춤형지원 (관계형 대출) *기술성, 성장가능 중심평가	운전자금 위주의 단기보증 형태 *간접지원 방식	지원 가이드 라인에 따른 자금 공급(온렌딩) *담보력, 상환가능성 중심
지원결정	중진공(정책수행기관)이 지원대상을 직접 결정을 *은행 대리대출 취급	은행이 지원대상을 결정 *보증→대출기관→기업	은행이 지원대상을 결정 *공사는 은행에 기준제시 및 전대
지원한도	잔액 50억 원 (사실 30억 원 운전 5억 원)	보증한도 30~100억 원 (신용등급별 한도 적용)	잔액 100억 원 (사실 50억 원 운전 20억 원)
대출기간	시설 8년, 운전 5년	단기 위주(1년, 재보증)	시설 10년, 운전 3년
대출금리	3.10~3.90%	보증료 0.5~3%	4.2% + 은행별 가산
업무감독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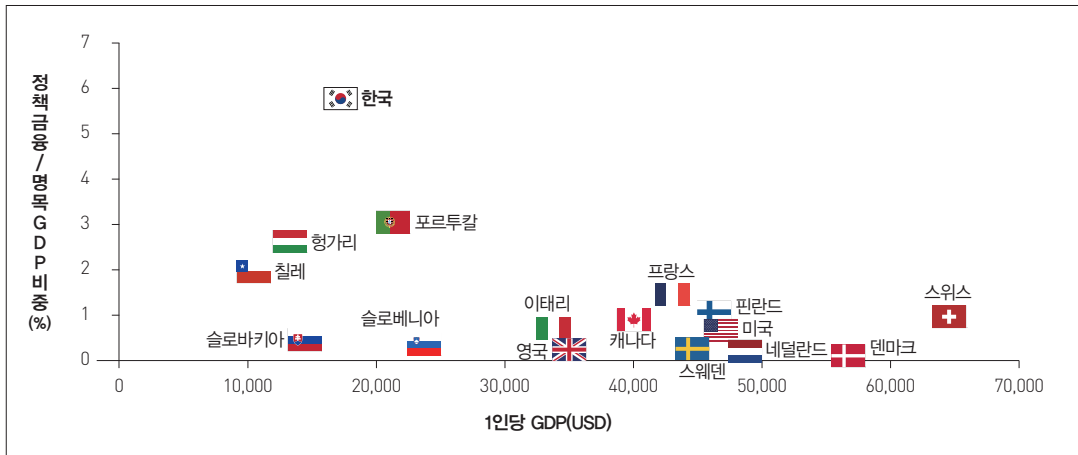
자료: 윤성식, 『중소기업 용자지원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2. 11.

나. 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국제비교

□ GDP대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1인당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국가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주요국 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비중



자료: OECD,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2, 2012. 및 손상호·김동환, 『중소기업금융의 발전과제』, 2013.6. 재인용

4.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문제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정책목표에 따라 충실히 집행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음.⁹⁾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1기업당 지원기관의 지원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1기업당 업력, 종사자수, 연구개발비, 1인당 임금, 영업이익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특성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정책금융기관들이 당해 기관의 특정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

○ 다만, 기보의 경우 1기업당 연구개발비가 높은 산업에 유의하게 더 지원함으로써 기관이 표방하는 바와 같이 기술력 있는 기업선정이라는 지원정책 방향과 동일한 지원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정책자금 지원의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고, 지원기관 간 중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성과는 더욱 저조

-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간 정책자금이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정책자금 대출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

○ 2011~2012년 6월 말 동안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온랜딩 대출을 받은 기업의 약 69%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⁰⁾

9) 장우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모색과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개발연구원, 2013.10.

10) 남주하, "정책금융체계 개편방향",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은가?』, 국회입법조사처, 2013.9. 고성선 외, 『건실한 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06, 2012.

[표 2] 온랜딩 지원사업의 신보·기보 중복지원 현황

구분	정책금융공사 온랜딩 전체지원	신보 중복지원	기보 중복지원	단위 개
				신·기보, 2곳 중복지원
업체수	3,806	1,197	1,244	199
중복지원율	-	31%	33%	5%

주: 2011~2012년 6월 말 기준

자료: 남주하, "정책금융체계 개편방향",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은가?』, 국회입법조사처, 2013. 9.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간에 중복보증이 나타나고 있음.¹¹⁾

○2012년도 기준으로 중복보증 현황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과 4,977개 기업에 2조 792억 원의 중복보증을 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과 동일 개수의 업체에 1조 5,778억 원의 중복보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각 보증기금 별 보증기금 전체 보증잔액의 5.3%, 8.9%에 이르는 규모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과 6.4%(8,649억 원), 기술보증기금과 3.4%(4,552억 원)의 중복보증 비율을 나타냄.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기관 간의 중복지원 발생 시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해 보면, 단일기관에서의 중복지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보다 다수의 정책금융 지원기관이 포함된 중복지원의 경우에 기업의 수익성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대해서 성과가 더욱 저조¹²⁾

5.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기관의 기능재조정 논의

가. 중소기업 정책금융 집행기관의 통폐합 논의

- 정책자금 집행의 중복성 및 집행기관의 업무 중복이 문제시되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 및 과잉공급의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정책금융기관 간 통합폐합 및 기능재조정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¹³⁾

○정책금융과 신용보증 업무 간 중복 및 직접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특수은행 등에서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정책자금 대출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공적 신용보증은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중복

11) 김태규, 『보증기금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13-07, 2013.5.

12) 이민호,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 지원의 효과성 분석 :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제42권 제2호 (2008 여름), 2008, PP.401-428.

13) 고영선 외, 『건실한 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06, 2012. 정책자금 중복성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고의 각주로 제시된 김태규(2013), 이민호(2008), 남주하(2013) 등에서도 상세히 분석하고 있음.

- 2008년 5월 23일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고 한계기업이 정책자금을 통하여 연명한다는 것을 이유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방안을 발표¹⁴⁾

○양 기관이 통합되면 과도한 보증공급으로 인한 금융 기관 및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중복보증을 방지하고 보증업무영역의 모호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양 기관의 전문성, 특수성을 극대화하기 어려우며 보증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됨.

○양 기관 통합논란은 2008년 10월 발표한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유보된 상태였으나, 최근 중복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개별영역에서 특화·발전되고 있다고 평가되면서 종식¹⁵⁾

- 최근 정부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여 단일화하기로 결정

나. 한·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제도의 개선 추진

□ 일본은 정책금융기관의 통합논의 결과를 입법화하여 정책금융기관의 개혁을 추진

- 일본은 통합 논의를 시작한 2005년 이후 2006년에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통합을 추진하여 신정책금융기관이 업무를 개시한 것은 2008년 10월이었음.

- 일본의 정책금융기관 가운데 국민생활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 국제협력은행은 1개 기관으로 통합해 정부출자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상공조합중앙공고,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정부보유주를 매각한 후 완전 민영화하고, 공영기업금융공고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조직으로 이관하는 등 정책금융기관 개혁을 단행¹⁶⁾

□ 우리나라에서는 정책금융 관련 기관의 재조정이 미미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금융 제도의 재정비 및 효율화는 더디게 추진되고 있음.

- 오규택 외(2007)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목표와 시한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변화와 함께 정부지원기관의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제기¹⁷⁾

13) 고영선 외, 『견실한 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06, 2012. 정책자금 중복성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고의 각주로 제시된 김태규(2013), 이민호(2008), 남주하(2013) 등에서도 상세히 분석하고 있음.

14)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논의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의 미래』, 2008. 국회입법조사처, 『신보·기보 통합시 혁신기업 지원 위축가능성』, 입법조사회답, 2010.4.8.

15) 2005년 12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간에는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음.

16) 고용수·이주연, "일본의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배경과 평가", 『해외경제정보』 제2007-47호, 2007.6.19.

17) 오규택·이기영·이창용, "EU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과 시사점 : EIF와 KfW를 중심으로", 『EU학연구』, 12(2), pp.1-33.

- 김세중(2009)은 중소기업 정책 관련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¹⁸⁾
- 지원기관 및 관련 법률의 통·폐합을 통해 지원정책을 정비하는 방안 : 일본의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사례와 같이 기존 지원기관을 통폐합하여 중복을 배제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
- 이 같은 관련기관 통폐합 방안 이외에도 다음 두 가지의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 첫째로 연도별 목표치를 정해서 강제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 중에서 정책성고가 부진한 20% 정도를 매년 폐지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둘째로 정책 일몰제 또는 졸업제를 도입하는 방안 :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범위, 지원기간을 명시하여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을 유도

6.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방향

□ 보호 및 안정성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성장성을 증시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방향을 설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안정성보다는 중소기업이 성장유인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추진이 바람직함.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성장성·수익성 등 지원의 효과성이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

- 정부의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중소기업의 효율적 성장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최대한 억제

○ 오랜 기간 보호주의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여 온 유럽 국가들도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¹⁹⁾

18) 김세중,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개편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09-20, 2009.

19) European Commission, *Addressing Challenges for High-Growth Companies : Summary and Conclusions of the Europe Innova Gazelles Innovation Panel*, 2008.

□ **현행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효율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전반을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하여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통폐합, 지원제도의 효율성·효과성 분석 및 지원기간·지원분야 제한 등 지원제도 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 필요**

- 영국·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복잡한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효율성 평가 및 지원제도의 통폐합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화를 도모

○ 영국의 경우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약 3,000개의 기업지원 제도를 오는 2010년까지 100개 이하로 대폭 정비하는 기업지원단순화계획(Business Support Simplification Programme: BSSP)을 추진²⁰⁾

○ 프랑스는 중소기업 정책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다수 수혜자에게 미미한 예산 나눠주기 식으로 정책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다수의 지원정책 통·폐합, 기업 설립을 위한 지원정책 수 감축, 지원분야 한정, 지원기간 5년으로 제한, 3년 후 의무적으로 효율성 평가 실시 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²¹⁾

-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성과가 부진한 지원제도를 폐지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

○ 과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중소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개별지원제도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과성·효율성 관점에서 명확하게 평가할 필요

□ **지원규모가 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낮은 성과, 기관 간 중복지원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구조개선이 필요**

-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일본은 이미 2006년에 정책금융 지원기관을 통폐합, 민영화, 폐지 등 형태로 입법조치 및 구조개혁을 추진

20) Business Support Simplification Programme : Information on Policy, Version 1.0, October 2008. BSSP의 목적은 기업가들이 정부지원자금서비스를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목표를 정하여 지원하고(targeted), 효율적으로 지원(efficient)하고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원(fit for purpose)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1) 중소기업연구원, 「프랑스, 혁신 중소기업 지원정책강화」, 2008.4.4. http://db.kosbi.re.kr/doclist/view2.asp?c_code=all&s_code=1&pid=090140&seq=80411F01

-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기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성과평가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기관이 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제도와 지원규모를 조정
- 정책자금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현재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기관 간의 역할에 차별화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객관적 평가 및 운용방식의 변경은 정책자금 운용기관의 기업평가능력 향상 및 자금배분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 기여
-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편은 정책자금 집행기관의 축소 또는 확대로 연결되고 결국 정책금융기관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구조개선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는 전체 정책자금의 용자, 보증 등을 포괄, 연계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합관리시스템을 시급히 구축
- 중복보증을 방지 및 중복보증 여부판단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양대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및 기타 중소기업 정책금융 대출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합관리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 운용할 필요
-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의 개폐현황 파악, 지원제도의 효과성·효과성 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3년 11월 4일 | 발행인 최병일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 전화 3771-0048 | 팩스 785-0270~3